

경기도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특별단속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및 선물 세트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대비하여 오는 2월 11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주요대상 업체는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지역 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89,102건 음식점 등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허위표시 119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미 표시 61건은 과태료부과 조치했다.

원산지단속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축산위생연구소 유전자검사팀과 연계하여 한우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하고 도·시·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양계농가에 생산성 향상사업 지원

강원도는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양계시설현대화, 양계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 춘천닭갈비명품화사업, 뉴캐슬병예방주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43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육계산업은 자금률이 83.9%,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약 9kg으로 육류소비량의 24%를 점유하고 있고, 계란산업은 자금률이 99.6%, 연간 1인당 소비량이 11.2kg로, 양계산업은 국내 농림업생산액 비중에서 육계 5위(3.6%), 계란 6위(2.9%)로 총 6.5%(25,880억원)를 점하고 있는 국내농업의 주요산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양계산업은 시설낙후 및 뉴캐슬병 등 질병 발생으로 생산성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어 강원도는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계시설현대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양계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산란율 향상 및 증체율 제고, 방역효율 향상에 의한 질병발생 감소로 농가손실이 줄어들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져 양계농가 경영개선과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강원도는 지난 2008년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8백7억원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융자지원했고 금년도에 이자 1%를 도비 등 지방비 7억6백만원

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축산농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축산농가에 지원된 특별사료구매자금(융자)은 한우 2,483호, 젖소 180호, 돼지 253호, 닭 96호, 기타가축 25호 등 총 3,039호에 8백7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에 따른 이자 지원은 총 1,816백만원(2009년→807백만원, 2010→706, 2011/303)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한우·젖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2011년 상환 완료), 돼지·닭은 2년 균분상환(2010년 상환 완료)이며, 이자는 연 1%(지방비 지원)다.

닭·돼지 사육수 증가

도내에서 닭과 돼지의 사육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7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강원도 지역 2009년 12월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42만1천마리로 지난해 9월보다 4.5%(1만8천마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란계는 311만마리로 0.4%(1만2천마리), 육계는 145만8천마리로 0.1%(2천마리) 각각 증가했다.

한·육우와 젖소 사육마리수는 각각 21만2천마리와 1만7천마리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잇따라 조성

해당 권역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나 볏짚 등 농축산부산물을 100% 재활용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된다.

경상북도는 김천시 아포읍 일대 농가가 참여하는 그린촌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2012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한다. 이는 울진군과 성주군, 영천시에 이은 4번째로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농축산부산물 비료화 설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자재 생산설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아포지역에는 축산분뇨나 볏짚 등 영농부산물 등으로 고품질의 친환경비료를 만드는 '경축순환 시설'과 미생물배양시설 등 친환경농자재생산설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친환경 조사료생산 등 다양한 순환형 영농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1,173농가로 경지면적과 축사 등은 1,163ha에 이른다. 또 한우 등 소 2천8백여마리, 돼지 2천여마리, 닭 4만7천여마리를 사육중이다. 지금까지는 축산분뇨를 액비로 발효시키거나 많은 비용을 주고 전문처리업체에 맡기고 있어 생산비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옛날 우리농업은 화학비료 없이도 땅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땅으로 되돌리는 순환형농업으로 농사를 잘 지어 온 것처럼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이 같은 영농법을 현대화·대형화

한 것"이라며 "2015년까지 도내에 10개 이상의 단지를 육성해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곡성, 가족형 자연순환형 축산농장 화제



가축 사료를 하루에 한번만 급여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위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흡수를 돕고 사료비를 절감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내는 '가족형 자연순환형' 축산농장이 있어 화제다.

특히 이 농장은 소, 돼지, 닭 등 3개 축종을 동시에 사육하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전국 유일한 농가로 경기, 전북은 물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지서 자연농업 견학을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곡성 옥과면 자연농업축산농장 박윤희(51)씨는 1천평 규모의 부지에 축사 5개 동을 설치해 소 12마리, 돼지

60마리, 닭(산란, 육계) 1천500여마리 등 3개 축종을 자연순환형으로 사육하고 있다.

박 씨의 축사는 일반 축사와는 달리 지하로 1m 정도를 파고 그 위에 표고버섯 폐목과 대나무 참숯 및 토착미생물을 채운 후 수분 조절을 위해 약 60cm 정도의 톱밥을 깔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파리 등 유해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FTA 및 DDA 등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축사시설도 자연에 의한 대류(기체나 액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붕을 유선형으로 설치해 여름에는 환기가 잘돼 쾌적하고, 겨울에는 채광을 충분히 해 축사 내부가 건조하도록 했다.

또한 농장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부엽토와 낙엽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와 축분을 토착미생물과 당귀 등이 첨가된 한방영양제, 미나리 등이 첨가된 천혜녹즙 등을 활용해 사료화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을 경영함으로써 관행 축산업에 비해 40% 이상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 자연농업 축산경영으로 소, 돼지, 닭을 한곳에 동시에 사육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없고 얻어지는 축분은 다시 가족에게 사료로 재처리해 자연 순환하는 환경친화적인 축사형태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농가 부업형 육성 모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박 씨 농장을 도내 축산농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견학 및 체험을 추진한 결과 6개월여만에 10회에 걸쳐 약 500명이 찾는 등 체험·견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요 탐방객들은 경기, 전북 등 6개 지자체에

400명, 미국·일본·뉴질랜드·말레이시아 등 100명 등으로 국내외 자연농업에 관심이 있는 축산인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필수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박 씨는 “앞으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자연농업축산농장을 지속 확대해 사육 규모도 늘리고 사육 노하우를 원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교육·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며 “또한 자연순환농업으로 얻은 쌀, 채소, 축산물을 이용한 자연농업식당을 경영해 소비자 신뢰를 쌓고, 미국, 호주 등에 친환경축산물을 역수출해나갈 것이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처럼 친환경축산을 선도하고 있는 농가를 지속 발굴해 적극적인 홍보 및 견학 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진군, 2010년 가축방역대책협의회 개최



강진군이 지난 1월 19일 2010년 한해 가축방역대책추진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가축방역협의회에는 관내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종별 단체장 및 유관기관 관련자 11명이 참

석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차단방역 대책과 함께 공동방제단 운영 계획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방제대책 등을 협의했다.

강진 가축방역협의회는 행정, 생산자단체, 방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질병발생시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0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탄저·기증저 등 소 예방약 5종, 돼지 열병 등 양돈분야 4종, 닭, 꿀벌 등 6개 축종에 대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 13종을 선정했다.

또한 2010년도 공동방제단용 및 다두사육농가 보급용 일제소독약품에 대해 협의회에서 1차 선정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산 농가 선호도 조사를 한 후 농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조기에 구매, 공급키로 했다.

강진군 운영갑 축산팀장은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며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단체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만일의 가축질병 발생시 유관기관단체 간 신속한 대응과 협조로 확산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닭 사육수수 줄어

전북 지역의 가축사육 가운데 한·육우와 돼지 사육수는 늘어난 반면, 젓소와 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5일 전라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요 가축행정 통계조사를 벌인 결과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4천두에서 31만5천두로 7%가 늘었고 돼지 또한 131만2천두에서 133만4천두로 전년보다 3%가 늘었다.

반면에 젓소는 4만두에서 3만7천두로 7% 가량이 감소했고, 닭 역시 3천8백12만2천수에서 3% 줄어든 3천7백14만수(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 닭고기 베트남 첫 수출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이 경기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가운데 수출품목 다변화 차원에서 제주산 닭고기가 처음 베트남에 수출돼 농가소득 증대에 한 몫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1일 도내 닭 도축장인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에서 제주산 닭고기 20톤(2만4566달러)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한다고 밝혔다. 제주산 닭고기 베트남 수출은 이날 제주항에서 선적된 후 부산항을 거쳐 8~10일 후에 베트남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닭고기는 주로 오일장 등에서 처리되는 산란노계이며, 가격도 도내 판매시 생체기준 kg당 300원보다 200원 더 높은 가격으로 수매되고 있어 농가 소득향상과 유통 선진화 등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라육계영농조합은 앞으로 매월 40톤 내외를 수출토록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다른 지방 훈제 생산업체와 연계해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도

샘플 수출을 통해 수출길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포장재, 현지 판촉비, 시설 개선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를 제2의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함은 물론 아시아 최초로 가금전염병인 뉴캐슬병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청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도시 유통시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일본에도 닭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냄새저감제 확대 지원

서귀포시가 올해 축산냄새민원 최소화 사업에 8억4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해충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억4천5백만원을 투입,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과 냄새민원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축산환경개선제 공급대상은 소(비육우·젓소), 돼지, 닭 사육농가로 생산자 단체 등의 책임하에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매월 공급하고 마을인접지역과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에는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냄새다발 지역 특별방지 시설 등을 통해 근원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냄새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